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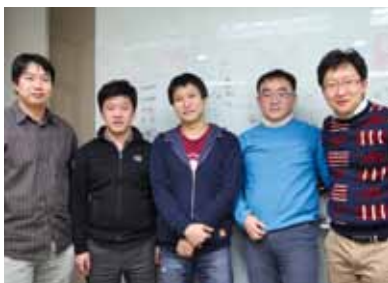


NEWS

방송계 동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OBETA 뉴미디어연구반 2기 출범



왼쪽부터 하재현 정책실장, 이정규 차장,
강창국 연구원, 김형순 부장, 박명석 연구원

뉴미디어 방송기술 활용 및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의 위상 제고를 위한 뉴미디어연구반 2기 활동이 지난 1월 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뉴미디어연구반 2기는 지난 2013년 말 한국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뉴미

디어 연구개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결과, '방송용 통합 소셜 허브 플랫폼 개발'로 사업을 정하고 총 5명의 연합회원이 본 연구반에 참여하게 됐다. '방송용 통합 소셜 허브 플랫폼'은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는 방송국의 SNS 채널(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들을 통합 관리하여 시·청취자의 손쉬운 참여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방송제작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다. 총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3월까지 정보취합과 관련 연구를, 6월까지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KOBETA 2014의 KOBETA 부스에서 진행 결과가 전시될 예정이며, 모든 개발이 끝난 후 각 회원사의 방송제작에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YTN

YTN 신사옥 완공 검사 실시



YTN 신사옥은 사용승인 검사를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인 위험물 취급소, 열사용 시설, 도시가스시설, 승강기 설치 등 완성 검사를 받았고, 소방공사 완공 검사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연동 등 세부 사항을 시험하였다.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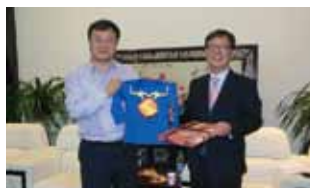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세계방송인회의 개최



올 9월에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지난 1월 15일에 국내외 방송권자(Rights Holding Broadcaster)를 상대로 최상의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세계방송인회의(WBM)가 인천 송도 쉼라톤 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경기대회 방송권 보유사 17개사를 포함해 주관방송사, 주관통신사, 운송사 등 180여 명의 관계자들에게 대회의 운영과 국제 방송신평 제작계획을 설명하고 개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가한 국내 방송사와 NHK, TBS(이상 일본), CCTV(중국), TPT(태국), I-Cable(홍콩), ABU 등 주요 해외 방송사 관계자들은 설명회에 이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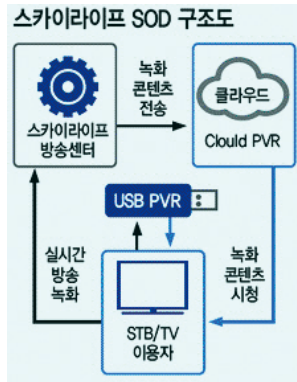
EBS '모여라 덩동댕', 중국에 포맷 수출



국내 어린이 프로그램 최초로 EBS가 '모여라 덩동댕'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에 수출했다. 지난 1월 16일 중국 베이징 CETV(중국 국영 교육방송) 창의문화센터에서 신용섭 EBS 사장과 뤼 시에우(呂學武) CETV 부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모여라 덩동댕' 프로그램 포맷 수출에 합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CETV는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유아교육 콘텐츠의 공동 기획, 제작 등을 제안하였으며, EBS는 CETV의 모바일 앱 개발을 비롯한 IT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의 분야에서 향후 양사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클라우드 PVR을 활용한 SOD 출시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업계 최초로 지난 1월 8일 클라우드를 활용한 차세대 PVR 서비스인 주문형 스카이라이프 SOD(Skylife On Demand)를 선보였다. 기존에도 PVR 서비스를 론칭한 적은 있었으나 차이점은 가정의 STB 하드웨어가 아닌 스카이라이프가 운영하는 클라우드에 가입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저장, 스트리밍하는 방식이다. 아직 서비스가 가능한 채널이

50개 정도에 불과하나 미국의 에어리오, 케이블비전의 판례에서 보듯 SOD는 스카이라이프의 공적실행(Public Performance)보다는 개인의 사적사용(Private Use)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CBS

CBS 창사 60주년 비전 선포식!



CBS 1954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출범한 CBS가 1월 14일 오후 5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CBS 창사 60주년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CBS는 이 행사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업정신을 담은 회사 로고 이미지(CI)와 브랜드 로고 이미지(BI)를 공개함과 동시에 창사 60주년의 비전을 선포했으며,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창사 60주년 슬로건도 함께 공표했다.

CBS 디지털기술국 융합네트워크센터 구축공사 완료



CBS 디지털기술국은 1월 20일 라디오/TV 송출, 방송망 관리, 서버관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융합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였다.

BBS

BBS, 인천중계소 88.1MHz 송출시작



BBS는 지난 12월 24일 인천중계소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인천지역에서 88.1MHz로 송출을 시작했다.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인천중계소를 허가 받아, 준공신고를 마치고 방송을 시작하여 인천시 남구, 동구, 중구 일대와 서구, 남동구 일부,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불교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OBS

OBS 이승현 사원, 뉴미디어연구개발 공모, 은상 수상



OBS 기술국 기술2팀 이승현 사원이 기술인연합회의 뉴미디어연구개발에 공모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뉴미디어 연구반 2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방송용 통합 소셜 허브 플랫폼' 연구개발을 통해 SNS 채널을 통합 관리하여 청취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하고 향후 방송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국제방송,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아리랑국제방송이 14일 서울 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에서 '한류 및 콘텐츠산업 관련 자료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한류 지속화 방안 수립, 콘텐츠 분야 글로벌 소비트렌드 연구에 필요한 미디어 리서치 자료(PAX DB) 등 보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tbs

113시간 연속 설날교통 특별 생방송 tbs와 함께



tbs에서는 설을 맞아 교통 특별방송을 진행한다. FM 95.1MHz에서는 설을 맞아 1월 29일 정오부터 2월 3일 새벽 5시까지 총 113시간 동안 귀향 및 귀경길의 수도권, 충청권 고속도로와 국도의 주요 정체구간, 우회도로 정보, 날씨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설날교통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다.